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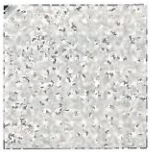
시울 주보

제2397호

2022년 6월 5일(다해)

성령 강림 대축일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정순택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입당송 | 지혜 1,7 참조

주님의 영은 온 세상을 채우시고 만물을 살리시며 온갖 말을 다 아시네.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2,1-11

화답송 | 시편 104(103), 1ㄱㄴ과 24ㄱㄴ, 29ㄴㄴ-30, 31과 34(◎ 30 참조)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또는 ◎ 알렐루야.)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

○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

제2독서 | 1코린 12,3ㄴ-7,12-13 <또는 로마 8,8-17>

부속가 | <성령 송가>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빛 그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오소서 마음의빛.
가장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손님 저희생기 돋우소서.
일할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빛 저희마음 깊은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도움 없으시면 저희삶의 그모든것 해로운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땅 물주시고 병든것을 고치소서.
굳은마음 풀어주고 차디찬맘 데우시고 빛나간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덕행공로 쌓게하고 구원의문 활짝열어 영원복락 주옵소서.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음 | 요한 20,19-23 <또는 14,15-16, 23ㄴ-26>

영성체송 | 사도 2,4,11 참조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 서울대교구장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요한 20,22)

전례력상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로 50일간의 부활 시기가 끝나고 내일부터는 연중 시기가 다시 이어집니다. 연중 시기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성령을 받아라.” 하시며 숨을 불어넣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상당히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서 “주 하느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데에서도 보듯이, “성령을 받아라.” 하시며 숨을 불어넣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성령을 통해 제자들을 온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 중 첫째 독서 후 화답송에서도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사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순간, 우리는 이미 새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두 번째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하신 말씀처럼,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오늘 말씀 중 저는 두 가지 표현에 대해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건네시는 인사는 거의 항상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시는 것은 평화가 그저 싸움이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고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사이에 서로 평화가 없다면,

먼저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죄의 용서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보듯이, 죄를 지은 인간은 스스로 하느님을 등지고 피하게 됩니다. 이렇듯 죄는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기에, 죄로 인해 단절된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죄의 용서’를 통해 하느님과 함께 있는 상태, 곧 참평화의 상태로 우리를 다시금 되돌리는 길을 사도들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참회성사, 고해성사라고도 하는 화해성사를 교회에 맡기신 하느님의 뜻은,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부족한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 다시금 하느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은총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 시기를 끝맺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를 새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겁 많던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새로 태어나 죽음도 두려워 않는 사도로 거듭났듯이, 우리도 성령 안에서 새사람으로 태어나 힘차게 연중 시기를 다시 출발합시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성령을 받아라.”(요한 20,19.22)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운데 서시어 평화를 빌어주시고 당신의 숨을 불어 넣으시며 성령을 주십니다. 세례를 받은 이래 우리는 날마다 보호자 성령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위험에서 건져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는 자주 잊고 지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일깨우며 오늘도 미사 안에서 그분을 만납니다.

홍덕희 아녜스 | 가톨릭사진가회



내 하루의 십일조

진초록 나무들과 웅성대는 꽃들로 눈부신 6월입니다. 계절의 변화는 하루하루 성실히 채우다 보면 어느 순간 화려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2년 전 퇴직하면서 ‘아침기도’와 ‘미사’를 매일 하리라 결심했습니다. 하루가 온전히 저의 자유의지에 달렸으니 가능할 것 같았고, 어느 날 피어날 은총의 꽃을 자랑할 욕심에 미리부터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기도와 미사를 우선순위에서 미루고 있었습니다. 문득 오래전 주보에서 읽었던 신부님의 글이 떠오릅니다. 신부님이 어렸을 때, 새벽에 소변이 마려워 눈을 비비며 나오면 항상 어머니께서 촛불을 켜고 묵주기도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의 기도가 신부님을 사제의 길로 이끌었고, 가장 깨끗한 옷차림으로 새벽 미사를 가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지금까지도 하느님 안에서 살게 하는 뒷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자식을 적당히 사랑하지 않고, 자신보다 자식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니까 거기에 조금만 더 신경 써도 될 것 같았습니다. 다른 엄마들처럼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빼먹지 않으려고 분투했고(?), 큰아들 한빛(프란치스코)의 군복무 기간에는 매번 새벽 미사를 하고 출근해 종일 비몽사몽 했지만 뿌듯했습니다. 조금만 틈새가 생겨도 기계적으로 묵주기도를 했으니 누가 보면 신앙심이 대단한 엄마라고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한빛이 하늘나라에 있어 슬픈 기억이 되었지만, 신부님의 어머니처럼 저도 참 괜찮은 엄마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한빛이 공군 훈련소 때, 십여 년 만에 처음으로 미사와 고해성사를 했다면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고해소에서 가슴이 벅차 아무 말도 못하다가 엄마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몰래 봤다고 띄엄띄엄 고백하니 신부님께서 엄마한테 ‘미사 드렸다고 전화



김혜영 사비나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하라’는 보속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하는 한빛에게 울컥하면서도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한 덕분이라고 자만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저에게 미사와 기도는 자식에 대한 욕심을 감추는 교만이었고 저의 불안함을 달래고자 하는 이기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사 지향도 목적이 바뀌었고 진심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시간을 때우는 데 급급한 저 나름의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따름’이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은 미사와 기도의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루는 이미 차지한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하루의 십일조는 2시간 24분인데 최소한 이 시간이라도 봉헌하고 있나 반성합니다.

이번 예수성심성월에는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 주시으로써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님께 한 빛을 의탁하며 정성껏 제 하루의 십일조를 봉헌하겠습니다. 이제라도 한빛에게 진짜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한빛 묵상



오소서 사랑님!
영혼의 기쁨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술뜰때에
위로를!

류상애 아녜스 수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성령이길바라는 부동아침에서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20

가톨릭교회의 구성 - 바티칸, 교구, 본당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가장 거대한 두 종교는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인데, 전 세계 그리스도교인은 대략 24억 명, 이슬람교도는 대략 12억 명이라 합니다. 1054년 그리스도교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뉘고, 동방교회는 ‘정교회’(Orthodox), 서방은 ‘가톨릭’(Catholic)교회라 부릅니다. 1517년 루터가 촉발한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가톨릭교회의 일부가 ‘개신교회’(Protestant)로 분파합니다. 이슬람교 역시 200여 개의 종파가 있고, 대표적으로 수니파와 시아파 등이 있습니다.

가톨릭교회의 공식 명칭은 ‘로마 가톨릭교회’(Ecclesia Catholica Romana)입니다. 전 세계 75억 명 가운데 약 18%에 해당하는 13억 3천만 명(2020 교황청 연간 참조)이 속한 최대 규모의 종교이자, 그리스도교 교파 중에서도 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12사도를 뽑으셨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은 이 교회를 계승하여 책임져 왔습니다. 따라서 가톨릭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이고, 가장 오래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중앙집권적 구조입니다.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을 중심으로, 교황이 직접 임명한 주교들에게 교구와 교회가 맡겨집니다. 교황은 로마 교구의 교구장이고 동시에 가톨릭교회 전체의 영적 지도자이며, 그리스도의 대리자, 하느님의 종들의 종, 흔히께서는 Papa(파파) 등으로 불립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는 ‘교황’(敎皇)이라는 호칭이 일반적이는데, 이 단어가 중세 황제 느낌이 나기에, 대만과 홍콩에서 부르는 것처럼 ‘교종’(敎宗)으로 부르자고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사

실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교구’(敎區)란 가톨릭교회를 지역으로 구분하는 단위이고, 교회의 행정구역인데, 주교가 관할하며, ‘지역 교회’라고도 합니다. 교구는 신자들의 공동체인 ‘본당’(개별 성당)들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성당, 본당, 교회는 에클레시아(Ecclesia)라는 라틴어를 번역한 것으로, 모두 비슷한 의미입니다. 굳이 구분한다면 미사 드리는 건물을 가리킬 때 성당이라 하고, ‘천주교 00동성당’이라 표기합니다. 본당은 신자들의 공동체, 사제가 상주하는 행정 구역상 교회 단위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가장 넓은 의미로, ‘하느님이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 ‘하느님 백성’, ‘그리스도의 몸’ 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 공동체를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를 하느님 백성이자, 그리스도의 몸이며, 구원의 보편적 성사라 합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하느님 백성’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하느님이고,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교회가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느님의 은총 전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사를 통해 ‘그리스도 현존의 현재화’를 실현하기에, 매일 성당의 제대 위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재현하는 성체성사는 교회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함께하는 국내외 지원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지구촌빈곤퇴치사업

캄보디아 '안나스쿨'

쫄쫄쫄어!(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 선교사 프랑소와 수녀입니다. 저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차로 5시간가량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인 프루사트(Prusati)의 '안나스쿨'이라는 지역 아동·청소년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농촌 지역의 아이들은 부모의 가난과 무관심 등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역시 수업료, 급식비, 교보재 구입비, 기타 과외활동비 등을 지불하기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학업을 쉽게 그만둡니다. 그래서 저희 안나스쿨은 지난 2013년부터 이 지역 아이들에게 방과 후 공부방 활동과 영양 간식을 제공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8개 시골 마을에 선생님들을 파견하여 총 800여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동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하는 마을 중 모든 생활을 물 위에서 해야 하는 수상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을입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부모가 대부분 주민등록이 되지 않아 정식 학교에 가지 못한 채 자라납니다. 그러다가 어린 나이임에도 생계를 위한 일터로 내몰리게 됩니다. 어리디 어린 아이들이 매일 생선을 잡고, 고사리 같이 작은 손으로 생선 비늘을 벗기는 일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아이들은 계속 배 위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근육이 약하고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안타까워서 작년 초부터 더욱 자주 수상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매주 2번, 1시간씩 차를 타고, 또 배를 타고 들어가 아이들에게 영어와 노래, 율동을 가르치고 영양 간식도 해주었습니다. 처음 수상 마을 공부방 수업을 시작했던 날, 50명의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의 눈망울이 어찌나 초롱초롱하던지요. 이 아이들이 배우지 못한 이유는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수상 마을을 벗어나, 육지에 있는 안나스쿨에 와서 공부도 하고 땅 위에서 뛰어놀며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이들은 안나스쿨에 올 때면 비가 내리는 날에도 그저 땅 위가 좋다며 신나게 뛰어놀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헤어져야 하는 순간은 다시 마음이 짝하지만,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아이들은 수상 마을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 가난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고,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런 소망으로 계속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쫄 어쫄! (감사합니다.)

프랑소와즈 수녀 | 그리스도 교육 수녀회

*모아주신 후원금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통해 캄보디아 안나스쿨에 지원되어 캄보디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활동에 지원됩니다. 총 지원금 5천만 원(미화 4만 달러)을 초과하여 모인 후원금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지구촌빈곤퇴치사업'에 지원됩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180-003488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2022년 6월 4일~7월 1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안나스쿨'을 위해 쓰입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http://obos.or.kr>)-한마음한몸소식-본부소식」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 ① 인터넷 신청: www.obos.or.kr > 후원안내 > 사랑의 손길 기부금 영수증 신청 ② 전화 신청: 02)774-3488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영화 '돈 룩 업'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대현 요나 | 국민대 겸임교수, 영화평론가

영화 <돈 룩 업>은 이런 가정(假定)을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만 한 크기의 혜성이 다가오고 있다. 그대로 두면 6개월 후 지구와 충돌해 모든 생명체가 멸종한다.'

처음은 아닙니다. 많은 소설과 영화들이 비슷한 상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현실로 다가올지 모른다는 불안과 경고로, 나중에는 지구 대멸종의 위기와 공포조차 다분히 오락거리로 삼기 위해서. 흉악한 외계인까지 등장시켰습니다. 결말이 비슷했습니다. 인류 대재앙의 위기 앞에서 세계는 모든 이해관계를 버리고 하나로 뭉쳤고, 위대한 지도자나 영웅이 등장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돈 룩 업>은 다릅니다. 다분히 자기만족과 낙관적 환상에 빠진 이런 영화들을 비웃으면서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고, 자기 이익에만 집착하고, 가볍고 오락적인 것만 소비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이기적 진실'과 '편 가르기'를 고집하고, 지구 환경의 위기보다 인기 연예인 커플의 결별과 재결합에 더 관심이 많은 세상을 적나라하게 풍자합니다. 누구도 지구로 돌진하는 혜성을 발견한 천문학 연구생 케이트(제니퍼 로렌스 분)와 그녀의 지도교수인 랜달 박사(리어나도 디캐프리오 분)의 말을 믿지 않으려 합니다. 아예 들으려조차 않습니다. 코앞에 닥친 선거와 대법관 지명 문제에 정신이 팔려 있는 미국 대통령(메릴 스트리프 분)은 바쁘다는 핑계로, 그녀의 아들인 비서실장은 그들이 명문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합니다.

생방송 토크쇼 진행자 브리(케이트 블란쳇 분)는 시청률에만 매달려 혜성 충돌을 농담거리로 삼고, 그 때문에 화를 낸 케이트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놀림감이 됩니다. 지지울 만회를 위해 대통령은 핵폭탄으로 혜성의 궤도를 바꾸는 긴급 발표를 거대한 불꽃 쇼로 연출하고, 최첨단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유명 정보기술(IT)기업의 최고경영자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광물을 독점적으로 얻으려 혜성을 조각내 바다에 떨어뜨리려 합니다. 그에게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대통령은 갑자기 계획을 바꿉니다. 이런 인물과 풍경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반으로 갈라집니다. 혜성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들과 혜성의 존재 자체를 가짜 뉴스라며 부정하거나, 정치 선전에 넘어가 혜성의 상업적 가치에 현혹돼 하늘을 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온라인에서는 논쟁을 벌이고 오프라인에서는 시위를 벌이며 서로 싸웁니다. 랜달 박사는 절규합니다. "어떤 땐 할 말을 제대로 전해야 하고, 듣기도 해야 합니다. 나는 어느 편이 아닙니다. 그냥 진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전부 다 죽을 거예요."라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지구로 다가오는 혜성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기의 실체가 혜성이 아닌 기후 위기라고 해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화 <돈 룩 업>의 풍자와 경고도 농담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닥칠 재앙은 결코 가정(假定)이 아닐지 모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를 떠올립니다. 주님의 경고에 따라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외치고 다녔지만, 그를 비웃고 멸시한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과학과 신앙 간의 적절한 접목 시도를 향하여

김도현 바오로 신부 | 예수회, 서강대학교 교수



QR을 스캔하시면
지난 과학칼럼 주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세 달간 저는 다양한 종류의 뉴에이지 운동이 파급된 결과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된 ‘과학만능주의와 절묘하게 결합된 영육일원론’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무신론이 가져온 폐해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폐해는 결국 교회의 구성원들이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비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육체적 건강을 과도하게 의식하고 물질적 풍요를 과도하게 추구하는 식으로 만들고 맙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직면한 위기는 사실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인 모두는 이러한 폐해에서 벗어나서 참된 신앙,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 신앙을 제대로 회복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예전처럼 성경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식의 신앙으로 가게 되면 우선은 교회 전체가 신앙적 열성을 회복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우리는 하느님의 6일간의 창조로 인해 이 우주와 지구가 6000년 전에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신교의 극보수주의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가톨릭교회는 이미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교황청 과학원, 바티칸 천문대 등의 기관들을 통해서 일선 과학자들과 적극적인 대화에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 과학의 내용을 충분히 수용하면서도 과학만능주의의 영향에 빠지지 않고 우리 고유의 신앙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창조주 하느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울라의 성 이냐시오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 주 하느님을 찬미하고, 흠송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각자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된’ 이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창조된 이 목적을 위해서라도 21세기 현대 과학 시대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쓰는 이 글은 바로 이 신앙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달부터 저의 글은 구체적인 과학 내용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이 과학 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릴 것입니다.

7월 첫째 주에 게재될
《과학칼럼》



오늘(6월 5일)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축일로, 신약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시노드 교구 감사 미사

이번 시노드 교구 단계를 통해 제안해주신 의견을 식별하여 교구종합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노드 여정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뜻으로 교

구장과 사제단이 공동 집전하는 감사 미사를 봉헌합니다.
 때: 6월 12일(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낮 12시
 곳: 주교좌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2007년 6월 8일 손영일 바르나바 신부(67세)
- 2007년 6월 12일 장덕범 바오로 신부(84세)
- 2015년 6월 7일 임응승 사도요한 신부(93세)
- 2017년 6월 6일 최승룡 테오필로 신부(80세)
- 2020년 6월 7일 정훈 베르나르도 신부(57세)

교구정월령

서울대교구 '온라인 혼인교리' 안내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혼인교리 신청' 통해 접수 /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제17회 가톨릭 환경상 공모

하느님의 창조질서 보전을 위해 노력해온 개인과 단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6월13일(월)~7월15일(금)
 문의: 02)460-7622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bck.or.kr>) 참조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프로그램 안내

1) '슬픔 속 희망찾기' 유가족을 위한 6월 유가족 미사
 때: 6월18일(토) 10시(목주기도) · 10시30분(미사 봉헌)
 곳: 영성센터 경당 / 집전: 차바우나 신부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2) 2022 영보스(yOungBOS) Peace Be With You 지구촌의 '평화' 그리고 나 자신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상: 20세~40세 가톨릭 청년 20명 모집
 때: 6월24일(금)~26일(일), 제주 면형의집
 모집기한: 6월8일(수)까지 / 회비: 10만원
 신청 및 문의: 02)727-2292 본부 홈페이지
 상세내용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2022년 영성심리아카데미
 영성심리특강, 기도동반, 영성심리독서모임, 피정 등(온라인)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 - 교육신청 문의(예약): 02)727-2126(tpc@seoul.catholic.kr)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삼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8시) /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참조

청년 Hello 기도 2022	삶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월피정 6월7일(화) 19시30분~2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소성당 청년 나누나 / 문의: 02)727-2031 고 크리스티나 수녀
신앙, 인문 학을 만나다 -음악-	문학 작품으로부터 탄생한 음악들 / 문의: 02)727-2047 6월9일~23일 매주(목) 19시30분~21시3회 / 곳: 영성센터 A304호 / 회비: 3만원

가톨릭 시니어 후원회 6월 월례미사

때, 곳: 6월7일(화) 오후 2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미사 및 강약: 서울대교구 이승규(새 사제)
 문의: 02)727-2385 노인사목팀

성경통독 6월 피정(사목국)

내용: 예언서2 / 지도: 조창수 신부
 때, 곳: 6월8일(수) 13시~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회비: 2만원 / 문의: 010-7586-5425(문자로 문의)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나윤경 개인전: 1전시실
 이승원 개인전: 2, 3전시실
 전시일정: 6월8일(수)~14일(월)

사목국 직장사목팀

1) 명동 직장인 금요미사 안내
 때: 매주(금) 12시15분
 곳: 명동대성당 코스트홀 2층 소성당
 문의: 02)727-2078 직장사목팀
 2) 직장사목팀 성가단 AESTUS CHOIR 단원모집
 대상: 20~40대 직장인 가톨릭신자
 연습·미사: 매주(금) 19시30분·둘째주(금) 20시, 명동대성당 코스트홀 2층 소성당 / 모집인원: 각 파트 00명
 문의: 010-5203-4355 단장, 010-5104-5644 부단장

민족화해위원회

1)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벽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1321차 미사 6월7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분당: 함흥교구 남남 본당, 청진 본당
 미사후에는 한반도 평화와 복벽본당을 위한 목주기도를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2) 2022 평화의바람(독도 & DMZ제정년평화순례) 참가자 모집
 대상: 평화에 관심 있는 20세~30세 젊은이(영여가능자 우대) / 문의: 02)753-0815
 때, 곳: 8월16일~22일, 독도&경기·강원 DMZ일대
 인원: 60명(내·외국인) / 회비: 10만원
 6월24일까지 이메일 접수 / <http://caminjok.or.kr>

월례미사와 하루일정 전국성지순례 접수 안내

1) 순교자현양 신심미사
 때: 매월 첫째주(화) 6월7일·7월5일 오전 10시
 곳: 절두산 순교성지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2) 하루일정 전국 성지순례 접수 안내
 때: 6월18일(토)·6월19일(일)·6월28일(화)
 곳: 홍주성지, 대홍봉수산, 예산성당, 배나드리
 신청: 6월6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회비: 1인 4만5천원(차량, 중식 제공)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가톨릭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76-8405

홍성남 신부(소장)의 영성심리특강 및 미사
 때, 곳: 6월11일(토) 15시부터, 가톨릭회관 7층

서울대교구 화상수업

주제: 자존감 되찾기
 때: 6월24일~9월23일 매주(금) 20시~21시
 교육 지도: 문종원 신부 / 문의: 010-6224-2920 강명인

6월 구역반장 월례연수

주제: 하느님을 찬미하는 사람들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에서 동영상 강의 제공 /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가톨릭 영유아(만5세 미만) 부모교육

주제: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즐거운 미사
 강사: 박종수 신부(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지도신부)
 때, 곳: 6월11일(토) 오전 10시~12시30분, 온라인비대면교육(ZOOM) / 5월30일(월) 10시~6월7일(화) 16시까지 유아부 홈페이지(www.catholicinfant.or.kr) 접수
 문의: 02)727-2115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문의: 02)921-5094, 010-3732-5093

6월6일	현충일(공휴일) 미사 없음
6월13일	오전 10시 30분
6월20일	중서울 김음동성당
6월27일	동서울 광장동성당
	서서울 양천성당

홍보위원회 특강 안내

강좌 신청: 네이버카페 '가톨릭예술아카데미'(<https://cafe.naver.com/catholicartstory>)

1) 시와 문학으로 만나는 하느님 / 문의: 02)751-4103
 대상: 신자 및 일반인(선착순 100명)
 때, 곳: 6월14일~7월5일 매주(화) 14시~15시30분, 교구청 501호 / 회비: 8만원(본인 부담 4만원, 교구 지원 4만원)

6월14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가치, 사랑	정호순 시인
6월21일	우리를 살게하는 힘, 영성과 문학	최대관 신부
6월28일	예전 살레를 사랑한다면 한번쯤은 세스그로프	김해진 시인
7월5일	너의 연애가 되기 위해 나는 불임을 해둘터다	전일환 시인

2) 신앙의 기쁨을 찾는 길 / 문의: 02)751-4105

대상: 신자 및 일반인(선착순 100명)
 때, 곳: 6월16일~7월7일 매주(목) 14시~15시30분, 교구청 501호 / 회비: 8만원(본인 부담 4만원, 교구 지원 4만원)

6월16일	교회미술을 통해 전례를 더욱 풍성하게	창공현 신부
6월23일	빛의 창조 공간, 고대 잉크	김진태 신부
6월30일	신앙의 기쁨을 찾는 길 '저녁에 주리다'서 큰 나무 뒤로	송희송 수교
7월7일	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아비'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최영갑 신부

모임

신부와 함께하는 청년모임

곳: 성 도미니코 수도원 / 기도, 토론, 나눔, 친교
문의: 010-5597-8431 도미니코 수도회

파티마 성모님 발현기념 피정

때: 6월13일(월) 10시~14시(미사) / 중식 제공
곳: 파티마 평화의 성당(주최) / 문의: 031)952-6324

토아울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자연치유력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때, 곳: 6월17일(금)~20일(월)·7월15일(금)~18일(월)·7월29일(금)~8월1일(월), 도미니코수도회 / 문의: 010-9916-5798 토마스모어 신부, 010-9363-7784 신글라라

삼성산 피정의 집 성령기도회 및 치유 대피정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사랑의성령봉사회

화요성령기도회 매주(화) 18시30분~22시

치유 대피정 6월11일(토) 13시~17시,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 문의: 010-3340-0201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황성)

성경 완독 6월10일(금)~18일(토), 7월8일(금)~16일(토)

효소단식 7월21일(목)~24일(일)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03차	6월17일(금)~25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104차	7월15일(금)~23일(토)	
제105차	8월12일(금)~20일(토)	

서소문박네거리순교성지 기도와 미사 및 피정

1) 파티마의 성모님과 함께 바치는 로사리오 기도와 미사
시간: 14시~16시(목주 준비) / 문의: 02)3147-2402 서소문 박네거리 순교성지, 02)3142-4434 절두산 순교성지

7월13일(수)	서소문 박네거리 순교성지	유경춘 주교
8월13일(토)	서소문 박네거리 순교성지	정순택 대주교
9월13일(화)	절두산 순교성지	구요비 주교
10월13일(목)	서소문 박네거리 순교성지	염수정 추기경

2) 서소문박네거리순교성지 '가정성화' 피정 / 문의: 02)3147-2402

때: 6월17일(금) 13시~16시(미사 포함) / 강사: 이형전 신부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예수마음선교수녀회)

곳: 예수마음 피정의 집(문산)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6월11일(토)~12일(일), 7월9일(토)~10일(일)
3박4일	6월16일(목)~19일(일), 7월14일(목)~17일(일)
8박9일	6월27일(월)~7월5일(화), 8월4일(목)~12일(금)
40일	9월14일(수)~10월23일(일), 12월10일(토)~2023년 1월18일(수)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6월1일~30일 / 문의: 010-8874-7970

평화의 모후 청년 셀 모임(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대상: 미혼 / 문의: 02)756-3473, 010-7510-4820
때, 곳: 매주(금) 19시30분, 가톨릭회관 513호

성모승천수도회 십자가 도보 성지순례

때, 곳: 6월18일(토), 갈매못·삼터 성지(대전교구)
출발: 7시30분, 전철 2·4호선 사당역 공영주차장
문의: 010-3080-9104 / 사전접수 필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세~40세 청년 신자
때, 곳: 6월12일(일) 14시~17시, 평신도선교사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 / 문의: 010-3817-0567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신자들을 위한 8박9일 생애 연피정(선착순)
주제 강의: 세계 교회사와 한국 교회사
때, 곳: 7월11일~19일, 제주면형의집 피정센터
문의: 010-3015-0187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해설강의, 묵상, 미사
지도: 정 바오로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성가기도: 고영민(찬양선교사) / 성경직해 피정비: 1만원
때, 곳: 매월 둘째주(토) 6월11일 14시~18시, 구산성지 /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에서 갖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시간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반장
때: 6월13일~15일, 6월27일~29일, 7월3일~5일, 7월8일~10일, 7월23일~25일, 7월31일~8월2일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교육

장례지도사 봉사자반 교육생 모집

때, 곳: 7월2일~9월17일 매주(토) 9시~18시, 의정 부교구청 내 신앙교육원 / 팩스: 031)837-0144
게시판(cafe.daum.net/c-sjr) 공지사항 참조 / 문의: 031)874-6272 의정부부교구 연례회연합회·상장례학교

2022년 국악성가 캠프 참가자 모집

대상: 성가대, 일반 신자 / 입금 선착순 200명
지도: 강수근 신부 / 문의: 010-2279-0255
때, 곳: 8월26일~28일, 영성의집(양산)
회비: 25만원(버스비 5만원 별도)

학교 밖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학교 밖 청소년(14세~24세)
내용: 김정고시 및 수능, 수화, 보컬, 사진, 기타, 필라테스, 영어대화, 독서토론 등
자원봉사자: 김정고시, 수능 학습지도 가능하신 분
문의: 02)382-5652 서울형대안교육기관 청소년 문화공간JU역촌동

'다함께 성가를' 발성교실

평화방송TV 이호중 교수 직강
곳: 시스나음악원(주최, 신촌)
문의: 010-9842-8818

성령선교수녀회 일본어 성경읽기(Zoom 온라인)

때: 6월9일~30일 매주(목) 20시30분(1시간, 4회)
회비: 1만원(10명 이내) / 문의: 010-2691-4895 하루수녀

한국외방선교회 성서인문학 강좌 재개

대상: 성서인문학 강좌에 관심 있는 분
때, 곳: 6월8일 15시~16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강사: 김병수 신부(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14시, 소성당 / 문의: 02)3673-2528

서강대 게임·평생교육원 제1기 디지털자산

최고전문가 과정 모집 / 문의: 02)705-8718

주요과정: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STO

때: 6월24일~10월21일 매주(금) 16주

홈페이지: <https://scec.sogang.ac.kr>

돈보스코미디어스쿨 신입생 모집

과정: 고등과정(17세~24세) / 문의: 02)833-0930
검정고시반, 독서, 사회, 영어, 체육, 미디어, 제과제빵, 미술, 사진 / 남자기숙사 운영
곳: 돈보스코 미디어스쿨(양천구 신월3동)
홈페이지: <http://db-mediaschool.kr>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영성학교·성체성혈대축일 대피정

문의: 02)773-3030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1) 영성학교

때: 6월15일~7월6일 (수) 14시~16시 / 강사: 백남일 신부, 원성목 신부, 김창훈 신부, 홍성만 신부
곳: 영성센터 B201호(구 계성여고) / 회비: 4만원

2) 성체성혈대축일 대피정(교구장과 함께하는 피정)

강사: 교구장, 나종진 신부(사목국)

미사집전: 교구장과 지도 사제단

때, 곳: 6월20일(월) 13시, 명동대성당

인천교구 지혜의샘(북방선교 기도공동체) 교육

곳: 부천시 송내동 366-5 지혜의샘
유튜브에서 매일 실시간생방(미사 포함)과 강의와 다양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010-5454-1871, 010-3248-9705

(월~목)·(일)	오전 목주기도 20단 오후 말씀 강의와 파견미사
(금)	성시간과 함께하는 철야 기도회

예수회센터 여름방학 특강(7월 개강·각 6주 과정)

이 밖의 다양한 강좌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사람의 법, 영혼의 법- 하느님의 사랑, 성사	현장 강의: (월) 10시~12시 동영상 녹화강의: 링크 발송	이훈 신부
욕망, 심리적 돌봄과 영적 성장의 문(문)	현장 강의: (수) 10시~12시 동영상 녹화강의: 링크 발송	유성모 신부
가톨릭 사회교리의 원리와 핵심 이슈들	현장 강의: (목) 10시~12시 동영상 녹화강의: 링크 발송	전주희 수사

미사반주를 위한 오르간 교육(대치2동 오르간아카데미)
 곳: 대치2동성당 내 / 문의: 010-9468-7660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모집

성 김대건 성가단 정기 단원 모집

대상: 음악대학 졸업생 및 재학생 / 문의: 010-3131-4269
 때, 곳: 매주(수) 19시30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명동대성당 가톨릭여성합창단 신입 단원모집

대상: 만20세~53세 이하 가톨릭신자 및 예비신자 여성
 오디션: 6월26일(일) 13시 / 문의(문자): 010-8788-4781

등촌7중합사회복지관 조리 및 배달 자원봉사자 모집

내용: 어르신·장애인 대상 도시락 배달 또는 밀반찬 조리
 때: 도시락 배달 (월~금) 10시~11시, 밀반찬 조리 (목) 13시30분~15시30분 / 문의: 02)2658-6521~3

우니타스 성가대 단원 모집

매주 화요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 복녘의 57개 본당을 기억하며 드리는 미사에 함께 할 단원을 모집합니다
 미사: 매주(화) 19시, 명동대성당 / 문의: 02)753-0815
 대상: 60세 미만(수시 모집) / 연습: 매주(화) 미사 전

미사

한국의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3673-2525
 때, 곳: 6월8일(수)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북방선교회 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10-6219-1575
 대상: 북방선교회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 회비 없음
 집전: 김운상 신부(해의선교봉사국 차장)
 때, 곳: 6월8일(수) 14시, 가톨릭회관 205-2호

인사

마리아의 종 수녀회 피정집

내용: 개인, 소그룹 피정(취사 가능)
 곳: 마리아의 종 영성의 집(수원) / 문의: 031)227-8221, 010-6844-8221 마리아의 종 수녀회

제주도 관광

제주운전기사사도회에서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및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제23회 새천년복음화연구소 심포지엄

주제: 예비신자 교리교육을 위한 교회의 역할
 때, 곳: 7월16일(토) 14시~18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문의: 02)2096-0412 새천년복음화연구소

전·진·상 영상센터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jcsn.or.kr
 나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자기인식 작업·수지예니어
 그림: 매일 셋째주(금)·(토) 오전 10시~오후 4시

인천교구 송도2동성당 신축 현상설계 공고

등록: 6월4일(토)~14일(화) / 설명: 6월18일(토) 14시
 입찰: 8월27일(토) / 발표: 9월3일(토)
 송도2동성당 카페 (https://cafe.naver.com/lee2118)
 참조 / 문의: 032)858-9960

가리마스 알코올회복센터 / 문의: 02)521-2364

가족이 술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알코올 중독 회복을 위한 주·야간재활 교육 및
 의존자 가족교육과 자녀모임 상시 운영
 때: 주·야간 운영시간 (월~금) 9시~17시, (화~목) 19시~21시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리조트)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짓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응암동성당 '요셉 추모와 축복의 벽' 기도패 신청

추모와 축복패 접수 / 사용 기한: 무기한(단, 20년
 이후 재건축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기간 변동될 수 있음)
 대상: 고인(추모패), 세상을 살고 있는 교우·비신자
 등(축복패) / 사용료: 1인패 100만원, 2인패 150만원
 혜택: 합동 위령미사(명절·위령의날), 매월 1회 추모
 와 축복 미사 봉헌 / 문의: 02)2021-2700 사무실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심리·가족 갈등

전화 상담	(월~금) 10시~16시 / 문의: 02)990-9366
대면상담	문의(예약): 010-6836-9360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in.com) 토요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상담: 불안, 우울, 공황, 부부, 진로, 여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골룸반회, 심리학박사)
 문의: 010-9146-7654(www.dstcoun.net)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3040-7518

요양보호사 / 주 40시간 3교대, 기숙사 가능

서울성심간병인회 남녀 간병사 수시 모집

곳: 서울삼성, 서울성모, 여의도성모, 은평성모병원
 근무내용: 환자에게 간병 제공(24시간 병원 상주) / 1522-9415

문정2동성당 사제관 주방근무자 모집

분야: 사제관 주방근무자 1명(계약직)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 / 문의: 02)408-0179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
 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채용시까지 우편(우 05833,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7길
 34 문정2동성당 1층 사무실) 및 이메일 접수(sylvia.kiw@
 hanmail.net)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제출된 서류는 채용 확정 후 안전하게 폐기하겠습니다

세검정성당 시설관리 직원 모집

분야: 시설관리인(계약직 1명) / 문의: 02)3217-9595
 업무: 시설물 관리, 방호, 미화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시설관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
 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6월15일(수)까지 팩스(02-3217-9200)·이메일(khly88@
 naver.com) 및 우편·방문(우 03018, 서울시 종로구 세검
 정로6길 38) 접수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서울주보 게재 신청: http://cc.catholic.or.kr
 교회에서 인가받은 단체만 게재 가능합니다.

수도회 상소모임	때	곳	문의
가르멜 수도회	매월	수도원(서울)	010-2140-7414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3012-2616 조성하 신부
마리아의 종 수녀회	6월12일(일)	본원(돈암동)	010-6826-6882
말씀의 성모 영보 수녀회	6월11일(토) 14시	본원(과천)	010-3858-4166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수시	본원(경기도 남양주시)	010-4241-1210 성소 담당자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6월11일(토) 14시~12일(일) 13시	본원(경북 왜관)	010-8353-2323
성심수녀회	6월18일(토) 14시~17시	용산구 원효로 19길 49	010-9284-0304 채현주 수녀
천주교서울교구제신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6월18일(토) 14시30분	수도원(성북동)	010-6608-3217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교황님 기도 네트워크
-기도의 사도직-

신간

교황님의 기도 네트워크

손우배 지음
하우 | 198쪽 | 7천원
문의: 02)922-7090

교황님 기도 네트워크(기도의 사도직)는 1844년 프랑스 예수회 신학교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98개국 3천 5백만 명의 신자들이 함께하는 교황청 소속 기관이다. 이 책은 2014년에 작성된 '기도의 사도직' 문헌과 관련 자료 그리고 개인적인 성찰을 편집한 것이다.



신간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편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312쪽 | 1만5천원
문의: 02)460-7582

한국 근현대의 아픈 역사 속에서 목숨을 바쳐 신앙을 지킨 순교자들의 순교 행적과 신앙 활동들을 모든 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약전(略傳)이다.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를 비롯한 '하느님의 종' 81위의 생애와 순교 사실을 사료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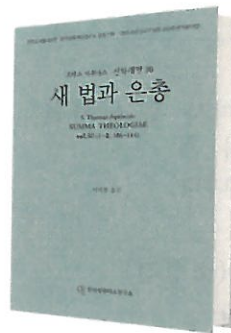


신간

한 사제司祭의 묵주기도 엔테오스

박비오 지음
기쁜소식 | 156쪽 | 1만2천원
문의: 02)762-1194

한 사제가 묵주기도를 바치며 되새겨본 내용으로 꾸민 책이다. 저자는 "이런 묵상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얼마든지 자유롭고 풍요롭게 여러분만의 내용을 묵상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 "하루에 일 단도 좋고 스무 단도 좋으며, 손에서 묵주를 놓지 않고 쉽없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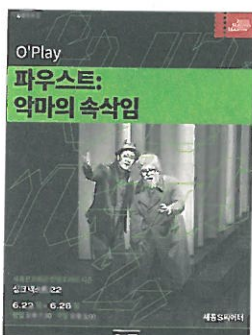


신간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30 새 법과 은총

토마스 아퀴나스 지음
한국성토마스연구소 | 648쪽 | 4만원
문의: 02)762-1194

신학대전 30은 비교적 짧은 세 문으로 구성된 '새 법'(lex nova) 논고와, 여섯 문으로 구성된 '은총'(gratia) 논고가 합쳐진 것이다. '새 법' 또는 '복음적 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총 자체'이다. 따라서 새 법은 윤리학뿐만 아니라 『신학대전』 전체가 수렴되는 꼭짓점이라 할 수 있다.



연주회

서울시오페라단 파우스트

공연시간: 목·금 19시30분, 토·주일 15시
입장료: R석 6만원, S석 4만원
문의: 02)399-1000
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10명 20% 할인

서울시오페라단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괴테의 걸작 '파우스트'가 6월 23일(목)~26일(주일),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에서 공연된다. 괴테의 '파우스트'는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영혼을 팔고 겪는 일을 담은 1부와 인간 구원의 문제를 탐구하는 내용을 담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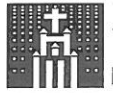
cpbc TV

이야기 공간 아씨시

방송시간: 주일 16시, 수 16시20분,
목 19시, 토 2시20분 · 8시20분
첫 방송: 6월5일(주일) 16시
문의: 02)2270-2114

그간, 주변에 이런 공간이 있었을까? 누구나 환영받고 편안하게 머물다 가는 곳, 삶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경청하는 곳. <이야기 공간 아씨시>로 당신을 초대한다. 사람의 마음을 다독이는 공간지기 김제동 프란치스코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롯이 들어주는 휴식 같은 시간. <이야기 공간 아씨시>에서 우리들의 이야기 한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기 바란다.

제2232(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연회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지명국(비오로) 010-5512-4450

주일 미사	• 토요일: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 월요일: 06시 화요일: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06시, 10시 토요일: 06시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예비신자 입교식 : 6월 5일(주일) 11시 미사

교리반	교리 시작 날짜	장소
수요반	6월 8일(수) 오후 8시~	교육관
주일반	6월 12일(주일) 오전 9시~	304호

※ 7월 10일(주일)까지 모집합니다.

◎ 전입교우를 환영합니다(4/27~5/29).

성 명	세 례 명	구역/반
송연주	올리바	1-1
한정희	세레나	2-5
박제연	힐데가르다	3-3

◎ 전입교우 환영식

일시 : 6월 12일(주일) 교중미사 후 도서실

※ 매월 둘째 주일 교중미사 후
전입교우 환영식이 있습니다.

◎ 여성구반장 회합

일시 : 6월 12일(주일) 12시 (소성전)

◎ 청년 에니어그램 일일피정

에니어그램 테스트를 통해 주님의 모습을
나와 타인 속에서 발견하는 피정

대상 : 연회동성당에서 활동중인 20~30대 청년

일시 : 6월 12일(주일) 오후 1시~6시

참가비 : 15,000원

신청 & 문의 : 청년회장 (010-5125-8040)

◎ 청년 이레밴드 단원 모집

모집파트 : 보컬(남/여), 건반, 드럼 등

연습일시 : 매 주일 오후 3시

열린미사 : 매월 마지막주 주일 오후 6시

문의 : 스테파노 단장 (010-2829-3856)

※ 열린미사는 밴드찬양을 통해 봉헌하는
청년미사입니다.

◎ 청년 레지오(셋별 Pr.) 단원 모집

대상 :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청년

회합(기도) : 주일 오후 7시 30분/ 207호

문의 : 안나 단장 (010-9524-8988)

◎ 청년 한푸름성가대 단원 모집

매 주일 오후 6시 청년미사를 찬양으로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일시 : 매 주일 오후 4시 / 301호

문의 : 미카엘라 단장 (010-3160-2988)

◎ 오늘은 성당유지보수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2. 5. 29)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097	798 (39.1%)	765 (36.5%)	43.8%	42.5%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유지보수기금 (2022년)

누 계 32,337,100원

◎ 연례회 감사헌금

고 김후덕 마리아 상가 이십만원

◎ 감사헌금 (5월 23일~29일)

진영문	 일십만원	진현주	 오만원
진현수	 오만원	이성애	 삼십만원
김매자	 일십만원	손은지	 일십만원
익 명	 일십만원	김명자	 일십만원
익 명	 삼십만원	정충덕	 일십만원
김현수	 오만원	신명자	 오만원
최석우	 오만원	김동기	 일천만원

◎ 우리들의 정성(주님 승천 대축일)

교무금 12,107,000원

주일헌금 4,857,100원

홍보주일 2차헌금 2,144,600원

입당	145	봉헌	142, 210	성체	176, 165	파견	144
----	-----	----	----------	----	----------	----	-----



주님 당신숨을 보내시 - 어 온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